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7년 10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문재인 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권력형 부정부패부터 출발”
- 롯데홈쇼핑,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받아
- 효성, '투명경영위원회' 설치...내부거래 등 자체감시기능 강화
- 최흥식 금감원장 "내부통제 정비 방안 내놓겠다"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커피

3. 청렴 위반 사례

- 학원 뉴스레터 발행
-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회

4. 지식마당

- Holistic Management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문재인 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권력형 부정부패부터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 17일 문 대통령이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 방침을 밝히면서 부활한 협의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당시 운영하다 이명박정부 이후 사라진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 운영 재개를 지시했고,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시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별 부정 비리나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들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 추진 전략을 세워 달라”며 “특히 각 기관의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검토해 나가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돼 있는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의 부패는 우리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26010012760>

2. 롯데홈쇼핑, '반부패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받아

롯데홈쇼핑은 27일 서울 양평동 사옥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것으로 공인인증기관의 반부패 의지 및 리더십, 부패 리스크 파악 및 평가, 리스크 모니터링, 지속적 개선활동 등을 심사한 다음 인증을 수여한다.

롯데홈쇼핑은 올 초 이완신 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롯데홈쇼핑 경영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윤리의식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준법경영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 4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해 모든 거래 과정에서 공정 경쟁 및 국내·외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회사 내에 '청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파트너사와 임직원 간 청렴 이행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270210976817010&ref=naver

최근 동향 및 소식

3. 효성, '투명경영위원회' 설치...내부 거래 등 자체감시기능 강화

효성이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내 내부거래와 인수합병(M&A) 등을 사전 심사하는 등 자체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또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대표를 조현준 회장에서 사외이사로 변경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효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명경영 강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효성은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이슈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한다. 또 분할·합병, M&A, 증자 및 감자 등 주주 가치와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 등에 대한 사전 심의도 열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이행점검, 윤리경영·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심의 등도 함께 하게 된다.

효성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경영진이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경영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다"며 "투명경영위원회의 활동내용은 매 분기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영 효성 사장은 이번 "이번에 발표된 지배구조 개선안은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하고 투명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향후에도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110229>

4. 최흥식 금감원장 "내부통제 정비 방안 내놓겠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잇따른 채용 비리 사태로 구설에 오른 금감원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정비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하 금감원 임원 13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함에 따른 후속인사도 조만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모 한정식 식당에서 열린 금융권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끝낸 뒤 기자와 만나 최근 채용 비리 사태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로 금감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52건에 달하는 위반·지적 사안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쇄신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문화 및 업무 관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다음달까지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709250100041950002525

윤리경영 실천 사례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커피

스타벅스는 세계인의 관점에서 성과를 중심으로 노력하는 회사로, 전 세계의 7,533만명 이상의 파트너가 노력을 기울여온 덕분에 2016년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많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국제 보존협회와 피딩 아메리카(Feeding America) 및 수 백개에 달하는 전 세계 지역 사회의 서비스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스타벅스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1. 지속가능한 커피

농가들에 대한 투자

스타벅스는 커피 장기 공급과 커피 농가들의 경제적 미래의 보장을 위하여 One Tree Every Bag Commitment를 2015년 9월에 시작하였다. 이는 2016년 말까지 노화와 커피 녹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감소한 나무를 대체할 커피 묘목 2천만 그루를 심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며, 1년이 조금 넘는 시간만에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이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1억 그루의 건강한 커피 나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농업 지역 사회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보존협회와 함께 전 세계 커피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5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커피 재배를 생계 수단으로 재구축하는 실질적인 모델을 제공하는 등 멕시코 오악사카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에 투자하고 있다.

다른 업체와 커피를 지속가능한 제품으로 만들기

스타벅스는 협업하고 솔루션을 공유한다면 커피와 관련된 큰 어려움을 더 빨리 해결한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커피를 세계 최초의 지속 가능한 농산품으로 만들기 위한 요구에 따라서 국제 보존협회가 이끄는 다양한 업계의 연합인 지속가능한 커피 챌린지(The Sustainable Coffee Challenge)의 창립회원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 본 챌린지를 통하여 업계는 10억 그루의 나무를 기부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 친환경 유통 선도

지난 30년간 환경 리더십의 전통을 이어온 스타벅스는 오랜 시간동안 지구 자체를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이해있다. 20여개 국가에 1,200개 이상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받은 매장을 구축하였으며, 2022년까지 컵의 재활용 소재 및 재활용/재사용 가능성을 2배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전 세계 영업장 전력을 100% 재생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투자하며, 환경을 더욱 더 생각하는 파트너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3. 기회 창출

스타벅스는 직업과 학교와의 관계가 단절된 수만명의 16~24세의 청년들을 포용하고 채용하여 꿈과 함께 하는 미래를 이루도록 돕고 있다. 2025년까지 25,000명의 파트너의 졸업과 접근성 및 성과 향상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지난 2015년 50개의 다른 기업들과 함께 2020년까지 100,000명의 기회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참전 용사 및 군인의 배우자를 채용하고 예우하는 일을 통하여 리더십, 경험, 봉사 정신으로부터 큰 유익을 얻고 있으며 2025년까지 25,000명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향후 5년동안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봉사하는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재능, 경험과 대응력을 가지고 있는 10,000명의 난민을 환영하고 채용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이끌 계획이다.



4. 지역사회 강화

미국 전역의 파트너들은 스타벅스의 사명과 가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판매되지 않은 식품을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피딩 아메리카와의

새롭고 독특한 전략적인 협력을 통하여 2017년 3월 까지 백만 인분의 식사를 하였으며, 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시작하면 기부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매년 5천만 인분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1년 4월에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한 달 내내 봉사에 전념하는 전 세계 봉사의 달을 시작하여 50,000명을 상회하는 파트너가 봉사하였다. 2017년 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끌고 이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모든 매장이 지역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5. 목표 요약

항목	목표
커피 구매에 대한 약속	100% 윤리 커피
나무심기	농가에 1억그루의 나무 제공
농가 기금	농가 대출에 5천만 달러 투자
오픈 소스 농업 경영	20만 가구의 커피 농가 교육
환경을 더욱 생각하는 컵 사용	재활용 소재, 재활용 가능성 및 재사용가능성 2배 증가
환경을 더욱 생각하는 매장	환경을 더욱 생각하는 매장 10,000개 구축 및 운영
환경을 더욱 생각하는 전력	전 세계 영업장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투자
Greener Aprons	10,000명의 직원에 지속가능성 권한 부여
참전용사 및 군인 배우자	25,000명의 참전 용사 및 군인 배우자 채용 및 예우
대학 성취 계획	25,000명의 직원 졸업 및 성과 향상
기회 청년	100,000명의 기회 청년 포용
난민	10,000명의 난민 환영 및 고용
Food Share	미국 소유 매장에서 기부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 100% 구호에 활용
지역 사회 봉사	전 세계 매장이 매년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도록 조치

이처럼 스타벅스에서는 회사의 성장이라는 1차원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스타벅스, 윤리경영보고서, 2017

청렴 위반 사례

1 학원 뉴스레터 발행

지방에 거주하는 A는 모 학원의 대표로 학원을 운영 중이다. A는 학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였다. 뉴스레터는 학원의 소식 및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행인도 학원명으로 출간되고 있다.

시사점 :

- ①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대표자와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음
- ② 발간하는 뉴스레터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잡지로 등록된 경우 뉴스레터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학원 등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
- ③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뉴스레터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잡지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2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회

A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근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되어 30만원 이상 상당의 사례금을 받았다. A는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의는 하루 동안 진행되었다. A의 평가위원회 참여는 올해가 처음이었고, 원래 참여 예정이었던 B를 대체하여 참여한 상황이다.

시사점 :

-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3조 제8항에 따라 설치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음
- ②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동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위원으로서의 업무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

지식마당

Holistic Management

1. Holistic Management 의 개요

Holistic Management는 경제적으로 재생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초원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 결정 체계를 말한다.

Holistic Management는 40 년 전 짐바브웨 생물학자, 정치가, 농부, 목장주 등 Allan Savour가 남부 아프리카에서 아름다운 사바나와 야생 동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개발되었다.

현재 지구의 2/3 는 사막이거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유목민들의 방목 때문이라고 배웠으며, 그들이 기르는 가축이 이동하며 모든 풀을 먹어치웠기 때문에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사막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일 뿐, 자연 생태 연구자인 앨런 새이버리를 통해 사막화의 실질적 원인이 밝혀졌다.

그는 연구 결과를 통해 사막화가 나타난 땅은 충분히 비가 오지 않는 곳이 아니라 수분을 저장할 준비가 되지 않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동물들이 풀과 흙을 밟고 배설물로 눌러주어 맨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동안 인간들의 포획으로 생태계의 피라미드가 무너졌고, 가축방목이 아닌 사육으로 바뀌며 땅을 충분히 일깨워 주지 못했고, 초목들이 농경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불에 태워 땅에 많은 해를 입혔다. 앨런 새이버리는 땅이 숨을 쉬고 수분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현명한 유목민들이 수천년 살아온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달라진 것은 유목민들처럼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순록이나 물소들이 대 이동하는 것처럼 날마다 이동을 시키는 것이다.

큰 방목 동물은 토양 표면으로 물질을 밟아 보다 빠르게 분해하거나 식물 물질을 먹고 소화시켜 대량의 물질을 감소시켜 사막화를 막을 수 있다.

2. 토지의 황폐화에 따른 비용

“토지의 황폐화는 비료 사용 증가, 생물 다양성 손실 및 독특한 경관 손실로 인한 숨겨진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연간 400 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책임있는 투자 (PRI) 와 유엔환경 계획 (UNEP) 이니셔티브 (Initiative)는 모든 천연 자원의 부실 관리 비용을 오늘날 세계 경제에 미화 6 조 6 천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전세계 GDP의 11 %에 해당한다 물 공급의 오염, 토양 침식과 가뭄을 통한 비옥 한 토지의 손실, 삼림 벌채와 남획으로 인한 공급망의 혼란 (2010) 등이 있습니다. ”- UNCCD

“일부 토지의 생산성은 토양 침식과 사막화로 인해 50 % 감소했습니다 ... 세계적 규모에서 연간 750 억 톤의 토양 손실로 인해 전 세계의 연간 비용은 약 4,000 억 달러입니다.”- Eswaran, H., R. Lal 및 PF 독일. 2001. 토지 황폐화 : 개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우리는 사막화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탄소배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 급증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대규모 가축농장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막화를 가속시키고 장기적으로 더 큰 기후 변화를 일으켜 전 인류가 대재앙을 직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Allan은 역설적으로 대규모 가축 농장 운영이 사막을 초원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초원은 대기 중의 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땅의 영양분으로 전환시키며 이는 다시 수풀의 생장을 돕고 수많은 동물들의 식량 공급원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지식마당

3. Holistic Management 적용 현황

Holistic Management는 인간의 가치, 문화 및 전통적 관행, 경제적 목표 및 필요, 생태학, 생물학적 맥락, 날씨 및 기후 영향, 야생 동물 서식지, 관리 물류 등이 거의 압도적인 수준의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다.

앨런 새이버리는 이러한 Holistic Management를 통해 세계 초원의 대규모 복원을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앨런 새이버리는 크게 3가지 관점으로 복원에 힘쓰고 있다.

- 땅을 치유함
- 다른 사람들이 땅을 치유 할 수 있게 함
- 복원에 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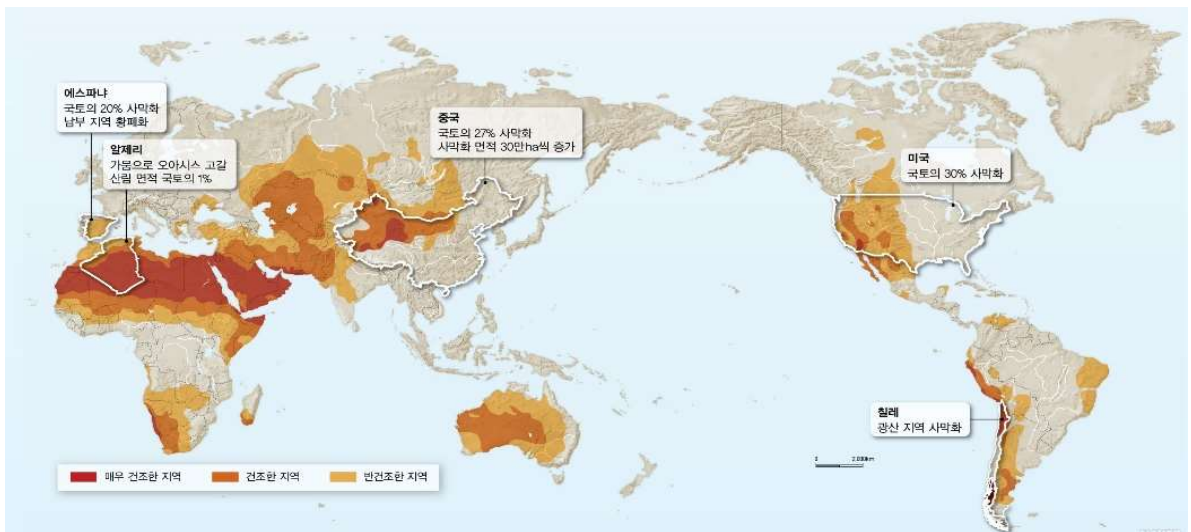
이 3가지 관점을 통해 앨런 새이버리의 2025년까지 전 세계의 초원 10 억 헥타르 (총 초원 면적의 1/5)에 영향을 미치고 복원 할 수 있는 전 세계 생산자, 교육자 및 단체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약 4 천만 에이커가 있으며 수많은 협력사들이 함께 이러한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젊은 여성들이 그의 방법을 배워 가축 농장을 경영하고 또 가르치고 있다. 평범한 남아프리카 가족이 카루 사막에서 자신들만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르고 있는 가축 수는 400%증가 했고, 이미 1500만 헥타르의 사막이 녹지로 바뀌는 성과를 이뤘다. 세계 5개 대륙 30여개의 허브에서 그런 활동을 돕고 있다. 우리는 앨런 새이버리와 Holistic Management를 통해 자연은 스스로가 재생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앨런 새이버리와 수많은 협력사들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List는 다음과 같다.

- Inner Mongolia, China – TNC Partnership
- Fox Ranch, Colorado, USA – TNC Partnership
- BX Ranch, Colorado, USA – TNC Partnership
- Bulembu, Swaziland – Building Africa Partnership
- Sahel Region, Africa - Heifer International Partnership
- Abu Dhabi, UAE - Govt Partnership

The Foundation of Holistic Management , Savory Institute
Eswaran, H., R. Lal 및 PF 독일. 2001. 토지 황폐화
유엔 식량 농업기구



Quiz

1. 다음 중 Holistic Management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초원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 결정 체계이다
 - ② 40 년 전 짐바브웨 생물 학자, 정치가, 농부, 목장주 등 Allan Savour가 개발하였다
 - ③ 앨런 새이버리는 사막화의 실질적 원인을 밝혔다
 - ④ 사막화는 유목민들이 기르는 가축이 이동하며 모든 풀을 먹어 치웠기 때문이다

2. 각 국제기구가 산정한 토지 황폐화에 따른 비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유엔 식량 농업기구 - 400억 달러
 - ② UNCCD - 6조 6천억 달러
 - ③ UNFCC - 1,000억 달러
 - ④ Eswaran, H., R. Lal 및 PF - 연간 4,000억 달러

3. 앨런 새이버리가 Holistic Management를 통해 세계 초원 복원을 촉진하는데 접근한 관점이 아닌 것은?
 - ① 땅을 치유함
 - ② 유목민들이 기르는 가축 개체 수를 줄이기
 - ③ 다른 사람들이 땅을 치유할 수 있게 함
 - ④ 복원에 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하기

4. 다음 중 앨런 새이버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것은?
 - ① Coast, Morocco - Marrakech Partnership
 - ② Inner Mongolia, China - TNC Partnership
 - ③ Fox Ranch, Colorado, USA - TNC Partnership
 - ④ Bulembu, Swaziland - Building Africa Partnership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④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 처벌 및 해고는 준법지원인의 직무상 권한이 아니다.
2. 답 ③ 외부기관에서 고용된다고 해서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3. 답 ②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4. 답 ①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행사

1.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영향업 종단체, 시민사회, 언론계, 법조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71>

2. “윤리경영·반부패·청렴사례공유”...제36회 윤경SM포럼 워크숍 개최

윤경SM포럼과 산업정책연구원은 26일 국내 공공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실무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경SM포럼 제36회 워크숍’을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윤경SM포럼 워크숍은 윤리경영 실무자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 우수 사례와 트렌드를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에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와 조직문화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산업정책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가운데, 2003년 3월 윤리경영 이해관계자를 주축으로 한국의 윤리경영 확산과 윤리적 기업문화를 이끌어 나갈 다자간 포럼인 윤경SM포럼(윤경은 ‘윤리가 경쟁력이다’의 약자)이며, SM은 Sustainability Management의 약자)을 발족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44336>

3. 한국표준협회, 한국남부발전에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협회 사무실에서 한국남부발전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국내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이번 인증을 통해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은 국내 대표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에너지기업에 수여하는 첫 ISO 37001 인증이다.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06346966148541002>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